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 | | | | | |
|---|---|----|---|-----------|-----|-----|
| 출 장 자 | 소 속 | 본원 | 직 위 | 부연구위원 | 성 명 | 구미영 |
| 출장기간 | 2015.7.7.~12(4박 6일) | | 출장지 | 스위스 (제네바) | | |
| 출장목적 | 1. 학술대회 발표 2. 해외 전문가 인터뷰 3. 관련기관과 연구자와의 네트워크형성 및 자문 | | | | | |
| 주최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 | |
| 방문기관 및 면담자 | | | 협의사항 및 작업내용 | | | |
| □ ILO 주최 “Regulating for Decent Work 2015 학술대회” | | | - 고용보험과 젠더라는 주제로 발표 -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의 발표 세션 참석 | | | |
| □ Judy Fudge(영국 Kent대학 로스쿨 교수) | | | - 캐나다 및 ILO에서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접근성 이슈 관련 인터뷰 | | | |
| □ 가사노동자 권리 관련 국제연구네트워크 회의 참석 | | | -국제연구네트워크 현황 파악 및 이후 계획 방청 | | |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5 . 7. 22.

출 장 복 명 자 : 구 미 영

<표지>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고용보험법 관련 학술대회 발표
및 해외 사례조사

보고자 : 구미영

여성권익·안전연구실 안전·건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장 배경 및 목적

가. 2015년 수행 중인 [여성가족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의 세부주제가 사회 보장법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이고, 이 과제의 외국 입법례 조사 파트의 주제가 시간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임.

나. 한국의 고용보험법제도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라는 주제로 Regulating for Decent Work 2015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되었음.

Regulating for Decent Work 2015 Conference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0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하며,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과 탈규제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 정책담당자, NGO 활동가 등의 고민을 교류하고 심화시키는 장으로 기획되었음. 4회차를 맞이한 2015년 학술대회에서는, (i) 노동조건의 보호: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 (ii) 불평등의 시대에서의 소득 불안정성: 근로소득, 사회보장, 양질의 삶; (iii) 노동시장 규제와 발전: 정책 개혁의 정치경제학 및 그 결과 (IV) 취약 근로자 집단의 보호: 목소리, 행동, 집단적 노사관계의 역할이라는 4가지 대주제를 갖고 세션을 구성하였음. 또한 (i) 가사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시도, 새로운 흐름 (ii) 글로벌 가치 체인 속에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조직되었음.

3일의 기간 동안 총 50여개의 세션이 진행되었고, 약 150명의 발표가 있었음. 개회식과 폐회식에 ILO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2년 뒤에도 더 다양한 지역의 발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폐회식 행사 사진. 가운데가 ILO사무총장인 Guy Ryder>

2. 출장 일정

가. 기간 및 장소 : 2015.7.7.~12, 스위스 제네바

나. 일정

| 일시 | 업무 내용 |
|-----------------|--|
| 7/7(화) | ○인천 출발(파리 경유) |
| | ○제네바 도착 |
| 7/8(수) | ○ ILO 개최 제 4차 “Conference of the Regulating for Decent Work” 참석 |
| | |
| 7/9(목) | ○ILO 개최 제 4차 “Conference of the Regulating for Decent Work” 참석. 젠더, 시간제 근로자, 사회보장, 가사노동자 관련 세션 중심으로 참석. |
| | ○ 해외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 Judy Fudge교수(영국 Kent대학 로스쿨) - 주제: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캐나다의 정책 동향 및 쟁점 |
| | ○ 가사노동자 권리 국제연구네트워크 회의 참관 |
| 7/10(금) | ○ 컨퍼런스 발표 발표주제: 한국의 고용보험법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서의 평가 |
| | ○ILO 개최 제 4차 “Conference of the Regulating for Decent Work” 참석. 젠더, 시간제 근로자, 가사노동자 관련 세션 중심으로 참석. |
| 7/11(토)~7/12(일) | ○ 제네바 출발, 인천 도착 |

II. 출장 결과

1. 한국의 고용보험 법제와 젠더 발표(세션 2.9. Social Protection and Impacts on Employment and Poverty)

발표자: 구미영

제목: 한국의 고용보험은 여성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 고용보험이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됨에도 여성의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 12% 낮은 원인과 관련하여 원인을 설명하고 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함.
- 발표 후 플로어에서는 ‘공식노동으로 편입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다뤄진 배경이 무엇인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관련 한국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Can Unemployment Insurance Protect Women from Poverty?

Miyoung Cu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workright@kwidmail.re.kr)

QUESTION:

IS SOCIAL SECURITY LAW
GENDER-NEUTRAL?

Outline of Unemployment Insurance(UI) in S. Korea

- The only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ing protection to the unemployed
- Financial resource of Parental leave allowances and maternity leave allowances in Korea belongs to UI
- Constant trends of expanding UI coverage after 1997 Asian financial crisis.

Few previous research on Korean UI's gender impacts

<이하 생략>

2. 주디 퍼지 교수와의 인터뷰

- 주디 퍼지 교수는 캐나다의 노동법 교수이면서 가사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플레너리 세션 발표도 맡은 바 있음.
- 고용보험 법제와 젠더 관련 캐나다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질문함. 이에 대해 주디 퍼지 교수는, 기혼 여성은 결혼과 함께 노동시장을 이탈한다는 것이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고용보험 법제도에서 전제하던 것이라는 역사부터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고용보험으로부터 기혼여성을 배제한 역사는 시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접근성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관점이라는 것이. 캐나다의 경우 2002년까지는 근로시간 제한이 있었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바탕한 것임.
- 2002년 이후 근로시간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최소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성 및 불안정근로자의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제도와 관련 정부에서는 젠더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이라고 하였고, 여성계와 노동계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와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 및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음.
- 또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 관련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상당수의 시간제가 비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유념할 것을 강조하였음. 관련하여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접근 불평등에 대한 캐나다의 연구 사례들을 소개함.

3. 학술대회 참석

- 가사노동자 권리를 특별 세션으로 조직한 영향인지 가사노동자 관련 세션이 매우 많았고, 예전에 비해 가사노동자 관련 이슈와 접근법이 다양하고 풍부해졌음을 확인했음. 예컨대, 2011년의 제2차 학술대회에서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의 필요성과 내용 중심의 발표 위주였다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조직화 방식 관련 사례 발표, 가사노동자를 연구자이자 활동가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소개, 이주노동이라는 측면에서 가사노동자 이슈의 의의와 해결 방안, 협동조합을 통한 가사서비스 시장 제도화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음. 이는 2011년 ILO의 가사노동자 협약 채택 이후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연구성과를 발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브라질, 호주, 이탈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양한 지역, 국가의 연구자들이 사례를 교류하는 뜻 깊은 자리였음.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발표를 하지 못했으나, 관련 세션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자는 계획을 나누었음. 가사노동자 권리 국제연구 네트워크의 회의(7/9일 저녁 7시)에 방청하여, 이제까지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3개의 공동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참관하였음.

- 또한 가사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돌봄노동자라는 넓은 범주에서의 조직화 사례, 법제도적 개선 사례 등이 소개되었음. 공식영역에 포함된 재가 요양보호사 조직화 사례를 소개한 미국과 호주의 발표가 흥미로웠음. 특히 호주의 경우 임금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저임금을 위법한 임금차별로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금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2014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서 한 단계 진전을 거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였음. 이후 본안소송 단계에서 소송의 추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성 있음.
- 학술대회 동안 매일 주요한 노동 관련 대가를 초청하여 플래너리 세션을 진행함. 특히 1일 차에는 주디 퍼지 교수(영국)와 게하드 보쉬(독일)이 정규적인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이 흥미로웠음. 게하드 보쉬 교수는 비록 SRE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무너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양질의 노동, 일자리를 위한 준거(reference)기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함. 주디 퍼지 교수는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유일한 모델, 준거로 볼 필요는 없고, 다양한 고용관계 형태 중 하나로 보면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노동법의 새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2일차 플래너리 세션에서는 2차 대전 시기 여성노동자의 약진과 성역할에 가해진 균열에 대해 [젠더와 노동]이라는 책을 저술한 루스 밀크만 교수(미국)가 기존의 노동운동에서 포괄되지 못했던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제기하는 사례,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발표를 하였음. 밀레니어, Ddy Laborer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관련 조직형태에 대한 소개, 미국에 존재하는 취약층 노동자층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 이 학술대회에서 아쉬운 점은 가사노동자 권리 관련 세션을 제외하고는 젠더 관련 발표가 매우 적었다는 점.

4. 이후 과제

-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집단적 교섭과 조직화를 통한 노동시장 균형 회복이 여전히 중요한 화두임을 확임. 여성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노조조직과 여성 관련 연구의 필요성 검토할 필요 있음.
- 또한, 정규직 고용형태의 붕괴와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확산 역시 여전히 중요한 주제로 젠더 관점에서의 연구를 기획할 필요성을 느낌. 우버 택시 기사, 이용자, 우버택시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 문제 등 기술발전예 따른 새로운 이슈가 부상되고 있음을 확인.
- Global Value Chain을 활용한 노동권 보장 전략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 이후 연구 과제 개발 시 참고 필요성 있음.